

UNFCCC 신기후협정 협상문에서 알 수 있는 9가지

글로벌 신기후협정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더욱 빠른 진전이 필요

2015.7.27, Ed King/ 지난 금요일(7.24) UN은 신기후협정 협상문을 간략한 형태로 (streamlined version) 발표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1. **협상 속도를 우려하는 공동의장.**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협상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공동의장은 시나리오 노트에 “[협상] 진전이 느렸었고,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가속화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 협상이 반드시 제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8월 31일 ADP 개막 전체 세션은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여 매우 짧게 끝날 것이고,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2. **보여주기식은 이제 그만, 본격 협상 시작.** 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다. 공동의장은 각 세션이 시작할 때 길고 장황하며, 종종 불화를 일으키는 발언들은 피하고 싶어한다. “모든 당사국이 발언 내용과 선언을 구두로 전달하기 보다는 UNFCCC 웹사이트에 올려놓기를 강력히 권장한다”고 썼다.
3. **파리 COP21에서 도출될 문서들의 윤곽 엿보여.**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라는 표제로 신기후협정의 주요 목표를 담은 문서가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있긴 있지만 별도로 ‘COP 협정(Conference of the Parties agreement)’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제안들을 엮을 것이다. 첫 번째는 협정의 주요 부분으로 법적 구속력을 담을 것이고, 두 번째 문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
4. **탄소 감축 목표와 방법**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당사국들의 전반적인 공약을 강조한 내용이 실리지만, 각 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COP 협정’은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역시 개별 국가의 목표를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5. **선진국에 ‘목표 하한(ambition baseline)’ 부과 가능성.** “선진 당사국은 2020년 이후 감축 공약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최소 25-40%의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출된 제안 중 하나이다. EU는 기준을 넘겠지만, US, 호주, 캐나다, 일본은 힘들 것이다.

6. Shall or should? 언어학자나 문법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문 문구 만들기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마침표, 쉼표, 콜론, 세미콜론 등이 다양하게 쓰였다. 이제 문제는 shall과 should로, 각 문단에서 조동사가 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선택해야 한다. 공동의장은 “shall이든 should 이든, 적절한 조동사는 당사국이 어떤 협상을 펼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썼다.

7. Part 3에 주목. 협정의 중심 이슈를 모아놓은 파트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동의장은 썼다. 탄소시장, 손실 및 피해, 토지사용, 기술 개발과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EU는 2020년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기후협정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8. 재정 필요성. 이번에 발표된 협상문은 재원조달 방안과 주체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선진국안 12월까지 기후재원흐름으로 1천억 달러를 마련하는 2020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9. 자기학습과 시간의 효율적 활용.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사국이 협상준비를 전적으로 마치고 와서, 활발하고 건설적으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협상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바란다.”

*발표된 협상문 본문,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adp2/eng/4infnot.pdf>